

1003(월) 마태복음 1-4장 마침내! 드러난 하나님 나라

“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(1:1)”

멸망과 포로기, 귀환, 혼돈의 시기들을 지나며
조상도, 왕손의 개념마저도 희미해져가던 그 때,
아브라함, 다윗을 명시한 족보가 낭독되기 시작합니다(1장).
유서 깊은 구원사와 예언을 품은 이름들 끝에
이 족보의 목표이자 절정인 분이 소개됩니다.
<왕이신 메시아, 예수 그리스도! >

족보는 14대씩 3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(1:17).

- ❶ 아브라함-다윗 (상승기) 위대한 약속, 영원한 언약
- ❷ 다윗-바벨론 포로기 (하강기) 이스라엘의 죄/심판/멸망
- ❸ 바벨론-예수 그리스도 (상승기) 귀환/약속/메시아

족보의 나열은 그 자체로 ‘정치적 선언’과 같았습니다. 롬 라이트
다윗 언약과 예언을 이룰 새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
하나님의 언약, 심판과 멸망 이후 약속하셨던 회복이
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시간입니다.
(1:16,23, 2:6,15,18, 3:3, 4:15-16)

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넘어 그 자체로 <임마누엘>이신 분(1:23, 12:6),
유월절(장자)/홍해/율법으로 이어진 출애굽 구원을 넘어(출2:20, 4:22),
세례(물)/성령/<아들>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 보이신 분(3:13-17, 롬8:14-15),
선악과를 넘어 <하나님 말씀>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이신 분(4:1-7),
율법의 한계를 넘어 <율법을 완성>할 분이시며(5:17, 시19:7),
율법으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(1:21).

예언대로 열방이 <시온>을 향해 경배하러 옵니다(2:1-12, 동방박사)*.
예수님의 존재, 말씀, 삶을 통해 예언들이 완성되어 갑니다.
마침내 주님이 통치하시는 <하나님 나라>가 드러났습니다.
(Kingdom of GOD, 天國, 4:17) *사49:6, 단7:14, 미4:2, 습3:9 참고

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까?

- ❶ 백성들의 오래고 깊은 염원, 예언서들의 비전을 기억합니까?
- ❷ 예수님의 이름/삶/말씀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깨닫습니까?
- ❸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합니까?